



자신감을 가지라 (요한일서 4:18)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신감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론 우울과 탈진과 자포자기 상태에 들어가며 원망과 분노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이 아닙니다.

■ 열등의식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은 언약적으로 보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성적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역기능 가정에서 자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형에서와 경쟁 관계에서 자랐습니다. 항상 형보다 못하다는 열등의식으로 살았습니다. 열등감을 가지게 되면 피곤하고 우울하고 초조하고 고급하고 두렵게 됩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학생들을 보면 학생들 끝자리에 가까운 아이보다 1~2등 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어른들도 말단 직원보다 이사나 사장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많습니다. 그것은 심리적인 요인 때문입니다. 열심히 해서 성취욕을 어느 정도 맛보지만 그 순간은 잠깐이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보이고 많이 보인 만큼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이 드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분노만 가득하게 됩니다. 열등감으로 살면 평생 피곤하고 불행합니다.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있는 대로 사십시오. 그것이 행복입니다.

■ 대립과 고립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에서 편애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집착력을 가



지게 되었습니다. 형 것을 빼앗아서라도 형보다 나아지려고 했습니다. 형에서와 대립관계에 있었습니다. 외삼촌댁에 가서도 라반과 대립되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과 벽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신앙은 모든 것을 그대로 두는 것 이기도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롬3:10). 그렇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그대로 두든지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죄는 하나님의 원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바입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면 자기 마음이 좁아지고 관계가 단절됩니다. 사람과 관계가 단절되어 고립되면 모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행복한 사람일수록 사람들과 관계가 좋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지적하지 말고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잘못에 대해 집착력을 보이지 마십시오.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 가식과 위선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동생으로 내신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에서의 것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야곱 자신으로 살려 하지 않고 서로 살려고 한 것입니다. 로마서 9:13 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언약적 해석으로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학적 해석 가운데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야곱으로 살아갈 때 사랑하시지 야곱이 에서로 살아갈 때 미워하신다” 그 의미를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야곱이 남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가면을 쓴 사람이 가면을 쓴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가면, 학교에서 쓰는 가면, 직장에서 쓰는 가면, 교회에서 쓰는 가면이 다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면 의식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오래될 수록 가면을 쓰는데 더 능숙해지고 연기를 하는데 더 능숙해집니다. 가식으로 살지 마십시오.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살지 마십시오. 남에 의해 살지 마십시오. 남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아가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감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에 생깁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고 고립감을 회복시키고 가식됨을 벗어버리고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차용철 목사-
그래픽=shutterstock

연합 조찬기도회 OC교계 협력 등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로 알려주세요.

오렌지카운티(OC)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신용), OC교회협의회(회장 심상은 목사), OC목사회(회장 박용일 목사), OC한인여성목사회(회장 이경신 목사), OC장로협의회(회장 김용진 장로), 세계기독교어머니기도회(회장 이선자 목사) 등 OC지역 주요 기독교단체가 4일(토) 예반엘리아대학교(총장 김성수) 채플실에서 2023년 3월 정기 조찬기도회 겸 OC교계단체연합 특별기도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김기동 목사(OC교협 증경회장)은 “성령 충만과 부흥”(눅 4:18-19)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 “교계 단체가 연합 사역을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성령충만이다.” 라며 “연합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며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성령충만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권면했다.

한편 OC교계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를 위한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 우편으로 수표를 보낼 경우 ‘Pay to: KCCOC, 터키 시리아 구제현금’이라고 적어 같 보리선교교회(8700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로 보내면 된다.

▶ 문의: (714) 722-4805 심상은 목사

교황 “남녀 평등하면 세상 더 나아져”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계 여성의 날’ 이었던 지난 8일 여성이 완전한 평등을 누릴 때 세상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황은 이날 바티칸 관영 매체 ‘바티칸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책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더 많은 여성의 리더십’의 서문을 통해 “여성의 기여 없이는 더 좋고, 정의로우며, 포괄적이고, 완전히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 수 없다.” 며 “모든 상황에서 남녀 간에 평등한 기회가 지속적·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더 많은 여성의 리더십’은 8개국 10개 대학에서 15명의 학자가 여성의 재능과 능력, 기술뿐만 아니라 그들을 옥죄는 불평등, 폭력, 편견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모은 책이다. 교황청 백주년기념재단과 가톨릭연구대학 전략연합이 저술을 후원했다.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Home Remodeling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넷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